

# 日·中·韓 四字成語의 형태적 비교에 관한 일고찰\*

李玉全\*\* · 李香蘭\*\*\*

(e-mail : yuquan1098@naver.com · ran96@wku.ac.kr)

## <목 차>

- |                   |                       |
|-------------------|-----------------------|
| 1. 서론             | 4. 연구결과               |
| 2. 사자성어 정의 및 선행연구 | 4.1. 한·중·일 同形 사자성어    |
| 2.1. 사자성어 정의 및 범위 | 4.2. 중·일 同形 한 異形 사자성어 |
| 2.2. 선행연구         | 4.3. 한·일 同形 중 異形 사자성어 |
| 3. 연구대상 및 방법      | 4.4. 일본에서만 존재하는 사자성어  |
|                   | 5. 결론                 |

キーワード : 사자성어(Four-character idiom), 간결성(Simplicity), 함축성(Implicit),  
同形(Same form), 異形(Different forms)

## 1. 서론

한·중·일 삼국은 한자 문화권에 속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서로 공유하고 소통했다. 특히 성어의 경우 한·중·일 삼국의 언어에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이는 한자를 매개로 삼국이 문화를 공유했기 때문이다. 또한 성어의 경우 간결성과 함축성 등의 특징 덕분에 오늘날까지 각국의 언어생활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

\* 이 논문은 2018年度 圓光大學校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 조성되었다.

\*\* 第一著者, 圓光大學校大學院博士課程, 日語日文學科, 九江學院助教, 日本語教育專攻

\*\*\* 交信著者, 圓光大學校 日本語教育學科, 教授, 日本語教育·日本語音聲教育專攻

한·중·일 삼국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사자성어는 다수 존재한다. 예컨대 「溫故知新」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원인은 삼국의 많은 사자성어들이 중국의 고사 및 詩文을 통하여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삼국의 모든 사자성어가 동일하게 표기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우선 형태의 차이 때문이다. 이 경우 대표적으로 「多才多能」이 있다. 한국의 「多才多能」을 중국에서는 「多才多藝」라고 쓰고, 일본에서는 「多芸多才」라고 쓴다. 즉 세 나라의 형태는 모두 다르다. 두 번째는 의미의 차이이다. 「攻守同盟」의 경우 한국의 사전적 의미는 “두 나라 이상이 공동의 병력으로 제삼국을 공격하거나 상대편의 공격에 대하여 공동으로 방어하기 위하여 서로 간에 맺은 동맹 조약”이다. 일본 역시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한·일에서 사용하는 의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동맹을 맺는 사람에게도 「攻守同盟」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처럼 의미나 형태의 차이는 한·중·일 삼국의 언어학습자에게 사자성어의 이해 및 사용에 많은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일본의 사자성어를 중심으로 한·중의 사자성어를 형태적으로 분류하여 비교·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중·일 삼국의 언어학습자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자 할 때 사자성어를 습득함에 있어서 모국어의 사자성어를 기반으로 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된다.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해 한·중·일 삼국의 언어 습득자의 원활 한 외국어 습득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2. 사자성어의 정의 및 선행연구

### 2.1. 사자성어의 정의 및 범위

한국에서 사자성어는 일반적으로 「三顧草廬」, 「馬耳東風」과 같은 고사성어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자성어는 고사성어를 비롯하여 「사람들이 오랫동안 익숙하게 사용해 온 간결하면서도 함축되고 고정된 형식을 갖춘 네 한자로 만든」 숙어로 규정하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사자성어의 정의가 한·중·일 삼국에서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 【日】

『国語大辞典』 ①고인이 만들어 자주 사용되어 온 단어. 숙어. ②숙어, 복합어, 합성어 등.

p.1267

『新明解國語辭典』 ①고사를 바탕으로 할 수 있거나 유명한 고인이 만든 속어, 함축성이 있고, 어떤 것은 출처가 있다. 「고사-」 ② 「관용구」와 같은 말. 예, 「二の腕」.

p.581

『大辭泉』 ①옛날부터 한 단어처럼 관용적으로 쓰이는 말. 속담·각언·성구. 「고사-」 ②두말 이상 결합하여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는 속어나 복합어 등을 말한다.

p.1461

【中】

『現代漢語詞典』 사람들이 오랫동안 익숙하게 사용해 온 간결하고 함축되고, 고정된 형식을 갖춘 旬나 短句이다. 성어는 일반적으로 네 글자로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 출전이 있다. 어떤 성어는 네 글자를 보면 쉽게 뜻을 알 수 있지만, 어떤 성어는 반드시 유래와 고사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다.

p.166

『辭源』 옛날 고어이다.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여 사용자들이 그의 유래한 출처를 알고 있다.

p.403

『新華詞典』 속어의 한 종류, 완전한 의미와 고정된 형식이 있는 간결하면서 함축된 관용구. 대부분 네 한자로 만드는 하나의 단어처럼 쓰이는 속어.

p.124

【韓】

『국어대사전』 ①말의 이름 ②옛사람들이 만든 말 ③『언어』=관용구. 속어.

p.1243

『동아 새국어사전』 이전부터 세상에서 흔히 인용되어 온 말 또는 속어.

p.1275

사자성어에 대한 한·중·일 삼국의 사전적 의미를 분석해 보면 한·일 양국은 성어에 대한 정의가 비슷하고 대체로 광범위하다. 그리고 옛사람들이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관용구, 합성어, 속어, 복합어도 성어에 포함시킨다. 반면에 중국은 성어에 대한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삼국성어의 사전적 정의에서 공통된 정의, 즉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인 중국의 정의를 따르도록 하겠다. 다시 말해 본 연구는 중국의 정의인 「사람들이 오랫동안 익숙하게 사용해 온 간결하면서도 함축되고 고정된 형식을 갖춘 네 한자로 만든」 숙어를 성어라고 정의하겠다. 대부분의 사자성어는 출전이 있고, 쉽게 뜻을 이해할 수 있지만, 어느 경우엔 그렇지 못 한다. 어떤 사자성어는 반드시 유래와 고사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四字成語’ 대신 ‘四字熟語’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일본에서 ‘四字熟語’는 수없이 많다<sup>1)</sup>. 일본의 ‘四字熟語’에는 「四面楚歌」<sup>2)</sup>, 「波瀾万丈」<sup>3)</sup>와 같이 고대 중국에서 유래된 사자성어가 있다. 그리고 「新陳代謝」, 「総量規制」와 같이 현대언어사회<sup>4)</sup>에서 만들어진 ‘四字熟語’도 있는데, 후자의 경우 본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하겠다.

## 2.2. 선행연구

그동안 삼국의 성어에 관한 선행연구는 크게 두 분류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우선 모국어로서 성어의 학습에 관한 연구이다. 이는 성어를 모국어 한 가지로 학습할 때 그 정의와 범위 그리고 구성 등을 연구한 논문이다. 두 번째 연구 분류는 모국어의 성어와 타국어의 성어를 대조·비교한 연구 논문이다. 먼저 한·중·일 성어의 정의 및 구조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겠다.

우선 중국의 연구를 살펴보겠다. 중국에서 성어의 정의, 범위 그리고 구조에 관한 연구는 馬國凡(1978)과 倪宝元·姚鵬慈(1979)의 연구가 있다. 馬國凡은 성어를 사용하는 네 가지 특성을 밝혀냈다. 馬國凡의 연구에 따르면 성어는 정형성, 관용성, 역사성, 민족성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익숙하게 사용한 형식이 고정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역사성과 민족성을 나타내는 것이 숙어라는 것이다. 또한 기본형식은 네 음절이라고 밝히고 있다. 倪宝元·姚鵬慈는 숙어의 범위에 대해서 논의할 때 성어와 관용어, 속담, 속어 등의 차이를 연구했다.

1) 高島俊男(2009) 『ちょっとヘンダゾ四字熟語』 文春文庫 p.12.

2) 【日·中·韓】 四面楚歌: 四方에서 들리는 楚나라의 노래라는 뜻으로, 적에게 둘러싸인 狀態나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孤立狀態에 빠짐을 이르는 말.

3) 【日·中·韓】 波瀾萬丈: 波濤의 물결치는 것이 萬丈의 길이거나 된다는 뜻으로, 일의 進行에 變化가 甚함을 比喩·譬喩하는 말로 쓰임.

4) 현대: 아시아사에는 대체적으로 1945년 9월 2일의 항복 선언 후 (제2차 세계대전 종결), 「近代」로- 그 이후를 「現代」로 나누고 있다. 국어대사전. p.121.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성어와 속어 및 관용어 등은 속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성어는 좁은 범위의 속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이 성어에 대한 중국의 연구를 통해 중국성어의 정의 및 범주는 한·일의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성어는 속어 및 관용어와 같거나 포함되는 광범위한 어휘라면, 중국의 경우는 이와 다르게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이다.

일본에는 「四字成語」 대신 「四字熟語」라는 명칭을 더 많이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연구는 「四字熟語」에 대한 연구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일본의 「四字熟語」에 대한 연구는 眞藤(1985)의 저서 『「四字熟語」の辭典-活用引用自由自在』가 대표적이다. 眞藤은 일본에서 최초로 「四字熟語」라는 용어를 확립시켰다. 그 이전에는 일본은 성어를 「故事成語」, 「故事熟語」, 「成語」, 「成句」라는 명칭으로 불렀다.<sup>5)</sup> 眞藤에 따르면, 「四字熟語」는 네 한자로 된 속어이고, 현대 언어생활에서 온 「新婚夫婦」와 전문용어에서 온 「人工衛星」 등은 전부 「四字熟語」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四字熟語」의 가장 광범위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다.<sup>6)</sup> 그러나 眞藤의 『「四字熟語」の辭典-活用引用自由自在』에서 다루고 있는 연구의 대상이 중국에서 유래한 사자성어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아쉬움으로 남는다.

일본의 중국언어학자 高島(2009)는 「四字熟語辭書」을 검토·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의 성어는 「四字の熟語」와 「四字熟語」두 가지로 나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四字の熟語」는 바로 네 한자로 만드는 모든 어휘를 말한다. 예컨대 「介護保險」, 「兒童虐待」와 같은 것도 「四字の熟語」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sup>7)</sup> 그리고 「四字熟語」는 ‘옛날부터 유래와 출처가 있고 교훈이나 중요한 의미를 함축시킨 말<sup>8)</sup>’이라고 정의 했는데, 이는 ‘좁은 범위의 사자숙어’이다. 다시 말해 高島가 언급한 「四字熟語」는 좁은 범위의 사자숙어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취급한 사자성어의 정의와 같다.

한·중·일 삼국에서 성어에 대한 대조·분석 연구는 대부분 한·중, 한·일, 중·일과 같이 두 나라의 성어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한·중·일 삼국의 성어를 대조·비교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한·중 성어에 관한 비교·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민병삼(1999)의 논문이 있다. 이 연구는 한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고사성어를 중심으로 연구했다. 그에 따르

5) 高島俊男(2009) 前掲書 p.13.

6) 眞藤健志郎(1985) 『「四字熟語」の辭典-活用引用自由自在』 p.2.

7) 高島俊男(2009) 前掲書 p.17.

8) 高島俊男(2009) 前掲書 p.16.

면 고사성어는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전통을 반영한 특유한 습관적 표현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고사성어는 두 개 이상의 어휘로 복합되어 제3의 의미를 갖고, 하나의 단어처럼 쓰이는 말이라고 밝혔다. 고사성어는 한자성어에 포함되어 있고, 한자성어는 두 개 이상의 한자 어휘로 이루어진 광범위적 개념을 제시하였다.

한·일 사자성어에 관한 연구에는 송서천(2000)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66개의 한·일 사자성어 중에서 50(75.75%)개가 同義同形이며, 16개는 同義異形라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결과가 생긴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첫째, 고대 중국 사자성어를 처음 한국어에 유입 할 때 성어 본래의 간결성과 음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성어의 일부분이 변화하고 생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사자성어의 함축성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성어의 형태를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小春日和」<sup>9)</sup>와 같은 한국어에 없는 일본 고유의 사자숙어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天高馬肥」<sup>10)</sup>와 같은 한국 사자성어를 만들어서 대치했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위와 같은 이유로 한·일의 사자성어의 차이가 생겼다는 원인을 밝혔다.

李叶(2016)는 『新明解四字熟語辞典』에 수록된 사자성어 중 숫자가 들어간 있는 사자성어만 선정하여 중·일 사자성어를 비교 분석했다. 이 연구는 高島의 ‘좁은 범위의 사자숙어’, 즉 중국 성어의 정의 및 범위를 적용하여 중·일 사자성어의 異同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리고 중·일 사자성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생긴 원인을 환경적인 요인과 사회 언어문화 적인 요인으로 규명했다.

한·중·일 삼국의 사자성어를 대조·비교한 연구는 林先濬(2013)의 연구와 張鳳運(2018)의 연구가 있다. 우선 林先濬은 2,831개의 한국 사자성어를 대상으로 중·일과 상응한 사자성어의 형태적인 차이에 주목했다. 이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에만 존재하는 사자성어는 1,500여 개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한일同形, 중異形은 200여 개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한·중同形の 경우는 990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중·일同形은 500여 개가 있고, 나머지 310여 개는 일본에는 없는 한·중同形이라는 것이다.

張鳳運의 연구는 『연세 초등국어사전』에 실려 있는 353개의 한국어 사자성어를

9) 【日】小春日和: 늦가을에서 초겨울에 걸쳐 따뜻한 맑은 하늘이다.

10) 【韓】天高馬肥: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는 뜻으로,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이 썩 좋은 節氣임을 일컫는 말. 가을이 좋은 季節임을 나타낼 때 흔히 쓰는 말이나 原來는 옛날 中國에서 흉노족의 侵入을 警戒하고자 나온 말임.

일본과 중국의 사자성어와 비교·분석했다. 그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353개의 사자성어에서 한·중·일同形同義 사자성어는 117개(33.1%)로 나타났다. 한·중·일에서 각각 相異한 사자성어는 90(25.5%)개로 나타났는데, 한·중이 동일하고 일본과 相異한 사자성어는 44(12.5%)개가 있고, 한·일 동일하고 중국과 相異한 사자성어는 70(19.8%)개, 중·일 동일하고 한국과 相異한 사자성어는 31(8.8%)개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삼국 同形異義의 사자성어로는 1개만 있다고 분석했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의 연구성과를 승계하되, 연구대상을 수집하고 분류하여 한·중·일 삼국의 사자성어에 대해 비교·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 3.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일본 사자성어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해 일본 『新明解四字熟語辭典』에 수록된 7,500개의 사자숙어 중 현대사회의 언어생활 중 생긴 「新陳代謝」, 「總量規制」 등의 사자성어를 제외할 것이다. 그에 따라 본 연구는 7,125개의 사자성어와 더불어 기존의 연구들을 참고할 것이다. 특히 기존 연구의 예시로 등장한 중요한 사자성어까지 추가 보충하여, 7,818개의 사자성어를 <표1> 「한·중·일사자성어목록」으로 만들었다. 이 목록에 등장하는 사자성어를 본 연구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표1> 한·중·일사자성어목록

일	중	한	비고
衡陽歸雁			巫峽啼猿數行淚，衡陽歸雁幾封書。
紅葉題詩	紅葉題詩	紅葉題詩	홍엽제시도 [紅葉題詩圖]
高陽酒徒	高陽酒徒	高陽酒徒	사기(史記)
紅葉良媒		紅葉良媒	《三元記·庆緣》：“一段姻緣天上来，何須紅葉良媒。
孔翹絕書	孔翹絕書		蒙求；孔翹絕書，申嘉私謁。

본 연구는 위 목록을 바탕으로 삼국의 사자성어에 대한 형태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내고자 한다. 특히 한·중·일同形, 중·일同形 相異形, 한·일同形, 중異形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에만 존재하는 사자성어를 분류하고자 한다. 그 이후 부분적 차이, 어순의 차이, 상응한 사자성어가 없는 경우 등 3가지로 재분류를 시도하고자 한

다. 마지막으로 한·중·일 사자성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 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 4. 연구결과

### 4.1. 한·중·일 同形 사자성어

한·중·일 삼국의 성어사전에 있는 사자성어의 어원과 출전을 살펴보면 대부분 고대 중국 고서와 시문에서 유래했다. 그리고 그 외에 불교용어에서 유래한 사자성어 등이 있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의 많은 사자성어를 그대로 인용하여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있다. 출전과 고사는 사자성어의 주요한 특징이고, 사자성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그 출전과 고사까지 파악해야만 하는 사자성어도 더러 있다. 그래서 사자성어의 학습과 연구는 그 출전과 유래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표2> 한·중·일 同形 사자성어

日=中=韓, 2236(28.6%)개	
大器晚成	출전: 道家 『老子』
越俎代庖	출전: 道家 『莊子』의 逍遙遊篇
溫故知新	출전: 儒家 孔子 『論語』
以心傳心	출전: 佛教 『傳燈錄』
錦上添花	출전: 『即事』
狼子野心	출전: 『左傳』
一日三秋	출전: 『詩經·王風·采葛』
三位一體	출전: 基督教 教義

한·중·일 삼국의 同形 사자성어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어원과 출전도 같다. 예컨대 「大器晚成」<sup>11)</sup>과 「越俎代庖」<sup>12)</sup>는 중국의 도가 고전 『老子』에서 유래했다. 또한

11) 【日·中·韓】大器晚成: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①크게 될 人物은 오랜 功績을 쌓아 늦게 이루어짐 ②또는, 晩年이 되어 成功하는 일을 이룸.

12) 【日·中·韓】越俎代庖: 도마를 넘어가서 祭祀를 擔當하는 사람이 飲食 만드는 일을 하다는 뜻으로, 自身の 職分을 벗어나 남의 職分이나 權限 따위를 侵犯하는 일을 이르는 말.

「溫故知新」<sup>13)</sup>의 경우 중국의 유교 고전 『論語』에서 유래했다. 「以心傳心」<sup>14)</sup>의 경우 불교 고전 『傳燈錄』에서 유래한 사자성어이다.

이 밖에 고전에서 유래한 것이 아닌 사자성어가 한·중·일 삼국에서 통용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狼子野心」<sup>15)</sup>은 중국 고대 민간의 속담, ‘狼子野心。是乃狼也，其可畜乎?’에서 유래했다. 또한 「一日三秋」<sup>16)</sup>의 경우 중국 고대 가요 ‘彼采蕭兮，一日不見，如三秋兮.’에서 유래했다. 이 밖에 많은 사자성어는 漢詩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詩體의 간결성과 함축성이 사자성어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錦上添花」<sup>17)</sup>는 漢詩 『卽事』<sup>18)</sup>의 ‘嘉招欲覆杯中渌，麗唱仍添錦上花.’에서 유래했다. 그리고 西洋 문화에서 유래한 사자성어 「三位一體」<sup>19)</sup>의 경우 고대 그리스도교의 교의에서 유래했다.

한·중·일 삼국의 同形 사자성어가 많이 존재하는 원인은 두 가지로 판단한다. 우선 첫째, 언어는 문화의 표현도구라는 점이다. 한·중·일에서 동일한 사자성어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같은 한자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한·중·일 삼국은 한자의 영향을 받아서 유교, 도교, 불교 등 문화를 서로 공유했기에 同形 사자성어가 많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둘째, 성어의 정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어는 고정된 형식을 가진 ‘하나의 단어로 쓰는 숙어’이고, 일반적인 관용어와 숙어보다 안정되고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四面楚歌」라는 사자성어는 고정된 형식으로 고사의 완전한 뜻을 표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그대로 인용하게 된다. 즉 ‘四面’ 혹은 ‘楚歌’ 처럼 따로 사

13) 【日·中·韓】溫故知新: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앎. 다시 말하면, 옛 學問을 되풀이하여 研究하고, 現實을 處理할 수 있는 새로운 學問을 理解하여야 비로소 남의 스승이 될 資格이 있다는 뜻임.

14) 【日·中·韓】以心傳心: 釋迦와 迦葉이 마음으로 마음에 전한다는 뜻으로 ①말로써 說明할 수 없는 深奧한 뜻은 마음으로 깨닫는 수밖에 없다는 말 ②마음과 마음이 通하고, 말을 하지 않아도 意思가 傳達됨.

15) 【日·中·韓】狼子野心: 이리 새끼는 아무리 길들이려 해도 야수의 성질을 어쩔 수 없다는 뜻이니,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한테 아무리 은의를 베풀어도 결국은 배신당한다는 의미다. 출처 【左傳】

16) 【日·中·韓】一日三秋: 하루가 삼 년 같다는 뜻으로, ①사랑하는 사람끼리의 思慕하는 마음이 懇切함을 이르는 말. ②뜻대로 만날 수 없는 焦燥함을 나타내는 말. 출처: 詩經·王風·采葛

17) 【日·中·韓】錦上添花: 緋緞 위에 꽃을 더한다는 뜻으로, 좋은 일에 또 좋은 일이 더하여 짐을 이르는 말.

18) 『卽事』 출처: 北宋·王安石的 시

19) 【日·中·韓】三位一體: 中心的인 基督教 教義의 하나. 基督教에서 聖父, 聖子, 聖神을 同一한 神格으로 여기는 教義.

용하거나 ‘八面楚歌’ 처럼 변화를 해서 응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한·중·일同形 사자성어는 2,236(28.6%)개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張鳳運(201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중·일 同形の 비율이 가장 높다고 분석했는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동일하다. 본 연구에서도 한·중·일同形 사자성어의 비율이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 4.2. 중·일同形 한異形 사자성어

본 소절에서는 중·일同形, 한異形인 사자성어를 분석했다. 이 분석은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는 사자성어와 어순적으로 차이가 있는 사자성어 그리고 한국에는 없는 사자성어로 분류했다. 본 소절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1,885(24.1%)개의 중·일同形 사자성어가 있는데, 이는 전체 분류에서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났다. 이는 일본의 사자성어의 경우 대부분 중국 고서와 시문에서 유래된 것이므로 중·일同形인 사자성어가 한·일同形인 것보다 많은 원인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제외했지만 한·중同形 사자성어의 비교 역시 동일한 원인으로 판단된다.

<표3> 중·일同形 한異形 사자성어

(日=中)≠韓, 1885(24.1%)개		
부분적 차이 276개	刮目相看(日=中)≠(韓)刮目相對	白手起家(日=中)≠(韓)白手成家
	雨後春筍(日=中)≠(韓)雨後竹筍	光輝燦然(日=中)≠(韓)輝煌燦爛
어순의 차이 39개	貪小失大(日=中)≠(韓)小貪大失	虎假狐威(日=中)≠(韓)假虎威狐
	衣錦還鄉(日=中)≠(韓)錦衣還鄉	趨吉避凶(日=中)≠(韓)避凶趨吉
상응한 한 사자성어가 없는 경우1560개	火中取栗(日=中)	不敗之地(日=中)
	不拔之志(日=中)	不倫不類(日=中)

### 4.2.1. 부분적 차이

한·중·일 語素<sup>20)</sup>의 차이를 살펴보면 한 음절의 차이가 있는 사자성어와 두 음절 이상의 차이 및 부분적 차이 등이 있는 사자성어가 있다. 한 음절의 차이가 있는 중·일同形 사자성어인 「刮目相看」은 한국에서 「刮目相對」<sup>21)</sup>로 사용한다. 이는 「刮目

20) 語素: <언어> 단어를 만드는 요소. 국어대사전. p.44.

21) 【日·中·韓】刮目相對=刮目相看:눈을 비비고 상대방을 대하다는 뜻으로, 남의 학식이나 재주가 놀랄 만큼 부쩍 늙을 이르는 말.

相對」가 한자의 單語素「看」를「對」로 교체한 예이다. 중국의「刮目相看」는「刮目(눈을 비비다)」과「相看(상대를 보다)」와 같이 두 개의 동작이 조합된 사자성어이다. 즉 중국에서「相看」는「相看待」의 略語이고「상대를 보다」와「상대를 對하다」두 가지 의미를 있는데, 한국의「刮目相對」는「상대를 對하다」라는 의미만 갖고 있으므로 사자성어의 변화를 알 수 있었다.

부분적 차이의 또 다른 예로는 중·일同形인「雨後春筍」과 한국의「雨後竹筍」<sup>22)</sup>라는 사자성어의 예가 있다. 이 사자성어는 기존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예시다. 그러나「春筍」(봄에 나는 죽순)이「竹筍」으로 바뀐 이유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의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春筍」이「竹筍」으로 바뀐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자 한다. 중국에서「春筍」는 많이 사용되는 식자재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春筍」이라는 단어나 표현이 한국어에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어를 표현하기 위해 한국에서 사용하는「竹筍」으로 바꾼 것으로 판단된다.「雨後春筍」과「雨後竹筍」의 예를 통해 각 나라의 생활 및 언어환경의 차이가 성어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본의 경우「雨後竹筍」라는 성어가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는「雨後の筍」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두 음절의 차이가 있는 사자성어의 예는 중·일同形인「白手起家」와 한국의「白手成家」<sup>23)</sup>가 있다. 한국의「白手成家」는 중국의「白手起家」와「白手成家」라는 두 사자성어에서 유래했다. 또한 한국에서 사전적 의미는「물려받은 재산이 없이 자기 혼자 힘으로 집안을 일으키고 재산을 모음」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타인의 힘없이 오로지 자신의 노력으로」뜻하는「白手」라는 표현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白手」라는 표현으로 바꾼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白手」는 한국에서만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다. 예컨대「白手削髮」이라는 한국의 사자성어가 대표적이다. 한국에서는白手라는 용어는 중국과 다르게「맨손」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대표적으로「白手乾達」이 그것이다.

#### 4.2.2. 어순의 차이

22) 【韓】 雨後竹筍: 비가 온 뒤에 솟는 竹筍이라는 뜻으로, 어떤 일이 一時에 많이 일어남을 이르는 말.

23) 【韓】 白手成家: 물려받은 財産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一家를 이룸. 곧, 스스로의 힘으로 事業을 이룩하거나 큰 일을 이룸.

【日·中】 白手起家: 아무런 경제력 없이 두 손으로 창업해 성공을 이룸.

중·일이 同形이고, 한국이 異形의 사자성어 「貪小失大」는 한국의 「小貪大失」<sup>24)</sup>과 어순이 다른 대표적인 사자성어다. 중국어와 반대로 한국어는 ‘주어+목적어+서술어’와 같은 언어 어순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순이 바뀐 것으로 판단된다. 즉 언어의 어순 차이는 사자성어에서도 나타났는데 중·일同形인 「貪小失大」의 경우 ‘貪小’는 ‘탐하다(貪)’라는 서술어를 먼저 쓰고 그 다음 ‘작다(小)’라는 목적어를 쓴다. 즉, 중국어에 맞는 어순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한국에는 이 사자성어를 한국어의 어순에 맞게 ‘小貪’ 즉, ‘목적어+서술어’로 바꾼 것이다. 그 다음 ‘失大’와 ‘大失’의 변화도 이와 같은 어순의 차이로 인한 것이다.

중·일同形인 「衣錦還鄉」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한국의 사자성어 「錦衣還鄉」<sup>25)</sup>에서도 ‘衣錦’과 ‘錦衣’를 통해 어순에서 차이를 알 수 있다. 여기서의 ‘衣’라는 한자는 ‘옷’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입다’라는 서술어의 성격을 가지는 동사이고, ‘錦’은 비단의 뜻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衣錦’는 ‘입다+비단옷’라는 중국어 어순에 맞는 표현이고, 이와 반대로 한국의 「錦衣還鄉」의 ‘錦衣’는 ‘비단옷+입다’라는 한국어 어순에 맞는 표현이다. 이렇듯 한·중·일 삼국의 언어습관과 문법의 차이는 사자성어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 4.2.3. 상응한 한 사자성어가 없는 경우

중국과 일본에서 자주 사용하는 「不倫不類」<sup>26)</sup>의 사전적 의미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꼴이 아니다. 적합하지 않다.’라는 뜻으로 쓰고 있는 사자성어이다. 이와 상응한 한국의 사자성어는 없지만 그 의미에 가장 부합하는 사자성어를 찾자면 「非驢非馬」<sup>27)</sup>라는 사자성어를 들 수 있다. 또 다른 예는 중·일同形 사자성어 「火中取栗」<sup>28)</sup>이다. 이 사자성어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의 이솝 우화 『원숭이와 고양이』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중·일同形인 「不拔之志」<sup>29)</sup>는 『南史·沈約傳』:“執不拔之志, 高臥東

24) 【日·中】 貪小失大: 당장 손에 넣을 수 있는 작은 이익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

【韓】 小貪大失: 작은 것을 탐하다가 오히려 큰 것을 잃음.

25) 【日·中】 衣錦還鄉: 「비단옷 입고 故鄉에 돌아온다」는 뜻으로, 出世하여 故鄉에 돌아옴을 이르는 말.

【韓】 錦衣還鄉: 「비단옷 입고 故鄉에 돌아온다」는 뜻으로, 出世하여 故鄉에 돌아옴을 이르는 말.

26) 【日·中】 不倫不類: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꼴이 아니다. 적합하지 않다.

27) 【韓】 非驢非馬: 당나귀도 아니고 말도 아니다. 죽도 밥도 아니다.

28) 【日·中】 火中取栗: 남의 꾀임에 넘어가 위험을 무릅쓰고 불 속에서 밤을 줍다; 아무런 이익도 보지 못하고 남에게 이용당하다. 죽 썰어 개 좋은 일하다.

南”라는 漢詩에서 유래했는데, 이와 상응한 한국의 사자성어는 찾아볼 수 없다. 중·일同形 사자성어 「不敗之地」<sup>30)</sup>는 『孫子·形篇』：“故善者；立于不敗之地”에서 유래한 것으로 한국에서 상응한 사자성어는 없지만, 그와 유사한 「百戰不敗」<sup>31)</sup>와 「萬年不敗」<sup>32)</sup>라는 사자성어가 존재한다.

### 4.3. 한·일同形 中異形 사자성어

한일 同形이고, 중국이 異形인 사자성어는 1,578(20.2%)개로 나타났다. 이는 중일 同形의 사자성어보다 적은 것이다. 이 비율은 張鳳運(2018)이 진행한 연구결과와 상반되며, 林先滄(2013)와 동일하다. 張鳳運의 연구는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한국의 초등국어사전에서 나온 353개의 사자성어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같은 차이가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林先滄도 한국의 사자성어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다. 林先滄의 연구는 많은 사자성어를 연구대상으로 참고한 점에서 본 연구와 유사하다.

<표4> 일·한同形 中 異形 사자성어

(日=韓)≠中 , 1578(20.2%)개		
부분적 차이 493개	立身出世(日=韓)≠(中)立身处世	騎虎之勢(日=韓)≠(中)騎虎難下
	滿身創痍(日=韓)≠(中)滿目瘡痍	威風堂堂(日韓)≠(中)儀表堂堂
어순의 차이 76개	再起不能(日=韓)≠(中)不能再起	無知蒙昧(日=韓)≠(中)蒙昧無知
	喜色滿面(日=韓)≠(中)滿面喜色	天地開闢(日=韓)≠(中)開天辟地
상응한 중사자성어가 없는 경우1009개	長安日邊(日=韓)	枯木死灰(日=韓)
	古琴之友(日=韓)	遠慮近憂(日=韓)

#### 4.3.1. 부분적 차이

한·중·일 사자성어의 語素를 살펴보면 한 글자의 차이가 있는 성어와 두 음절 및 부분적 차이가 있는 성어들이 있다.

먼저 한 글자의 차이가 있는 중국 사자성어는 「立身处世」과 한·일同形인 「立身出世」<sup>33)</sup>가 있다. 이는 ‘处世’와 ‘出世’에서 한 글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중국의 경우 ‘处世’는 ‘사회에서 활동하며 사람

29) 【日·韓】不拔之志: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

30) 【日·中】不敗之地: 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 적의 공격을 받지 않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31) 【韓】百戰不敗: 백번 싸워 백번 이긴다는 뜻으로, 싸울 때마다 번번이 이김.

32) 【韓】萬年不敗: 아주 튼튼하여 絶對로 깨지지 아니함.

들과 왕래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데, 한·일의 ‘出世’는 ‘사람이 태어나다’ 이외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유명하게 됨’ 등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판단된다. 이는 중국 사자성어와 한·일 사자성어가 동음자로 교체된 한 글자의 차이로 의미 및 형태가 달라진 성어의 예이다. 또한 중국에서는 ‘出世’는 ‘사람이 태어나다’라는 뜻으로만 사용한다. 또 다른 예시는 한·일의 「滿身創痍」와 중국의 「滿目瘡痍」<sup>34)</sup>가 있다. 한·일에서 「滿身創痍」는 ‘온 몸의 나쁜 상태’를 묘사한다. 그에 비해 중국의 「滿目瘡痍」<sup>35)</sup>는 ‘악한 환경’을 묘사할 때 표현한다. 이와 같은 차이는 유래에서 기인한다. ‘瘡痍’의 유래를 살펴보면, 이는 최초 중국 고대 唐·杜甫의 詩文 「北征」의 ‘乾坤含瘡痍, 忧虞何时毕?’에서 유래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하는 ‘瘡痍’가 환경을 묘사하고 있다. 요컨대 「瘡痍」라는 중국의 한자어가 한·일에 유입된 이후 그 의미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한·일의 「騎虎之勢」의 ‘之勢’는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기세’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에 호응하는 중국의 「騎虎難下」<sup>36)</sup>중의 ‘難下’는 단지 ‘내리기 힘들다’의 의미이다. 이러한 ‘之勢’의 용법은 한국 일상에서 많이 볼 수 있다. 한·일의 「威風堂堂」은 중국의 「儀表堂堂」하고 ‘威風’과 ‘儀表’의 차이가 있다. 한·일의 ‘威風’은 ‘위엄이 있는 풍채나 모양’이라는 형용사이고, 중국의 ‘儀表’는 ‘외모와 자태’를 뜻하는 명사이다. 그리고 한·일의 ‘堂堂’은 사람의 성품에 많이 사용하는데 중국의 ‘堂堂’는 이와 다르게 사람의 외모와 자태를 묘사할 때 사용한다.

한·일의 「武陵桃源」<sup>37)</sup>과 중국의 「世外桃源」<sup>38)</sup>은 의미는 같지만 형태는 다

33) 【日·韓】立身出世: 成功하여 世上에 이름이 드날림.

【中】立身处世: 인간이 사회에서 자기의 처신과 대인관계를 조심하게 함.

34) 【日·韓】滿身創痍: 온몸이성한 데 없는 傷處투성이라는 뜻으로, 아주 形便 없이 엉망임을 形容해 이르는 말.

【中】滿目瘡痍: 파괴 또는 재해를 입은 후의 눈앞에 보이는 광경이라는 것을 비유.

35) 【日·韓】滿身創痍: 온몸이성한 데 없는 傷處투성이라는 뜻으로, 아주 形便 없이 엉망임을 形容해 이르는 말.

【中】滿目瘡痍: 파괴 또는 재해를 입은 후의 눈앞에 보이는 광경이라는 것을 비유.

36) 【日·韓】騎虎之勢: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氣勢」라는 뜻으로, 범을 타고 달리는 사람이 途中에서 내릴 수 없는 것처럼 途中에서 그만두거나 물러설 수 없는 形勢를 이르는 말.

【中】騎虎難下: ‘호랑이를 타고 내리기 힘든 모습’이라는 뜻으로 일의 途中에서 그만두거나 물러설 수 없는 形勢를 뜻하는 말.

37) 【日·韓】武陵桃源: 이 世上을 떠난 別天地를 이르는 말.

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자성어의 연구에 있어서 그의 유래와 출처에 대한 고찰은 불가피하다. 「世外桃源」의 출처를 살펴보면 중국 秦나라 陶淵明의 저서 『桃花源記』에서 유래했다. 그리고 한·일의 「武陵桃源」은 『蒙求』<sup>39)</sup>의 「武陵桃源, 刘阮天台」라는 구절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다. 비록 두 사자성어는 같은 「桃花源」을 묘사하고 의미도 같지만, 성어의 출처가 다름에 따라 형태적 차이가 생긴 것이다. 다시 말해 출처의 차이는 각 나라의 사자성어의 형태 차이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 4.3.2. 어순의 차이

한·일의 사자성어 「再起不能」은 「再起(다시 일어나다)」를 먼저 쓰고, 「不能(못하다)」을 뒤에 쓴다. 이는 한·일에서 사용하는 어순에 따라 중국의 사자성어 「不能再起」의 어순을 바꾼 예이다. 이러한 사자성어의 어순의 차이는 한·일과 중국의 언어 습관의 특징에 따라 나타난다. 또 다른 예로는 한·일의 「無知蒙昧」와 중국에서 「蒙昧无知」<sup>40)</sup>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사자성어는 어순의 차이는 있지만 의미의 차이는 없다.

#### 4.3.3. 상용한 중 사자성어가 없는 경우

한·일에는 존재하지만 중국에는 없는 사자성어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분석 할 수 있다.

첫째, 고대 시문, 전설, 속담 등의 한 부분을 인용하여 사자성어로 구성되는 경우이다. 예컨대 「長安日邊」<sup>41)</sup>이라는 한·일 성어는 중국 쑤나라의 일화에서 유래했다. 당시 元帝와 明帝가 長安과 태양 중 어느 곳이 먼가를 문답한 일화에서 유래한 사자성어이다. 또한 한·일의 「疑心暗鬼」<sup>42)</sup>는 중국의 「疑心生暗鬼」라는 고대 속담에서 4음절로 바뀐 사자성어의 예이다. 마지막으로 「古琴之友」<sup>43)</sup>는 중국 春秋時代

38) 【中】世外桃源: 세상과 단절된 전쟁을 당하지 않는 안락하고 아름다운 곳.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나 환상 속의 아름다운 세계를 말한다.

39) 『蒙求』 唐나라 중기(8세기)에 李瀚이 지은 책. 아동용 교과서로 저명한 인물들에 관한 일들이 널리 수록되어 4자1구로 요약하여, 총 596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40) 【日·韓】無知蒙昧: 세상 물정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고, 사리에도 어두운 것.

【中】蒙昧无知: 지혜와 학문이 없고 어리석은 모습.

41) 【日·韓】長安日邊: 먼 길, 먼 곳.

42) 【日·韓】疑心暗鬼: 의심하게 되면 없던 귀신도 생긴다. 즉, 의혹을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해진다는 뜻이다. 또한 그릇된 선입견 때문에 잘못 판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43) 【日·韓】古琴之友: 자기가 잘 알아주는 친구.

의 ‘伯牙鼓弦’에서 유래한 사자성어인데, 중국에서는 이를 성어로 취급하지 않는다.

둘째, 중국 고유의 사자성어를 재조합과 축소해서 중국에 없는 사자성어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한·일의 「枯木死灰」<sup>44)</sup>이다. 이 사자성어는 중국의 「枯木逢春」<sup>45)</sup>과 「形如死灰」<sup>46)</sup> 중 두 글자를 취하고 합하여 새로 만들어냈다. 이는 중국 고유의 사자성어를 재조합 한 것이다. 축소의 경우 「遠慮近憂」<sup>47)</sup>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이 사자성어는 중국의 「人无远慮, 必有近忧」 성어를 축소하여 한·일에서 사자성어로 만든 예이다.

마지막으로 한·일 언어문화 및 불교문화의 영향으로 한·일은 同形하나 중국에서 상응한 사자성어가 없는 경우이다. 대표적으로 「机上空論」<sup>48)</sup>이라는 사자성어는 일본의 「机上の空論」라는 고유의 관용어에서 유래했다. 이외에도 「法華三昧」와 「五無間業」, 「寒山拾得」 같은 불교용어에서 유래한 사자성어도 있다.

#### 4.4. 일본에만 존재하는 사자성어

일본에만 존재하는 사자성어를 살펴보면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중국 유래(中國語語素<sup>49)</sup>)로 만들어졌으나 현재는 일본에만 존재하는 사자성어가 있다. 둘째는 불교용어 등으로 만들어진 일본만 가지고 있는 사자성어가 있다.

<표5> 일본에만 존재하는 사자성어

일본에만 존재하는 사자성어 2119(27.1%)개		
중국 유래 1227개	融通无碍	戴逵破琴
	几案之才	程邈隸書
기타 605개	不化衆生	梧前灯下
	蓮華往生	殺阿羅漢

44) 【日·韓】 枯木死灰: 「마른 나무와 불기 없는 재를 일컬으며, 외형은 고목과 같고 마음은 죽은 재처럼 되어 생기가 없다」는 뜻으로, 意慾이 없는 사람을 이르는 말.

45) 【中】 枯木逢春: 마른 나무에 꽃이 피다; 곤경에 처했다가 행운을 만나다.

46) 【中】 形如死灰: 죽은 재처럼 생긴 모양.

47) 【日·韓】 遠慮近憂: 먼 앞날을 걱정하지 않으면 가까운 장래에 근심이 생긴다.

48) 【日·韓】 机上空論: 현실에 없는 논의.

49) 語素: <언어> 단어를 만드는 요소. 국어대사전. p.44.

#### 4.4.1. 중국 유래(中國語語素)

중국 고전에서 유래했으나 일본에만 존재하는 사자성어의 대표적인 예는 「戴逵破琴」<sup>50)</sup>이다. 「戴逵破琴」의 유래는 중국의 詩文 『蒙求』의 한 구절이다. 그리고 「程邈隸書」<sup>51)</sup>는 고대 중국의 「程邈」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만든 사자성어이다. 또한 「几案之才」<sup>52)</sup>는 고대 중국의 옛이야기 『李遐伝』에서 유래한 일본에만 존재하는 사자성어이다. 일본에서 「之」字는 「의」, 「에」, 「가/이」등의 뜻으로 사용한다. 또한 일본에서 「之」字가 들어가는 사자성어는 약 700여 개이다. 그리고 그 중 200여개가 중국에서는 찾을 수 없는 사자성어이다. 예컨대 「苦肉之謀」는 중국 고대의 병법의 「苦肉計」에서 유래한 사자성어이다. 이를 통해 일본에서 中國語語素로 사자성어를 만들 때는 「之」字가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4.4.2. 기타(불교용어)

일본에만 존재하는 사자성어의 출처를 살펴보면, 고대 중국에서 유래한 사자성어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다음으로 불교용어에서 유래한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이는 다수의 불경은 한자 詩體의 형식으로 일본에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경에서의 불교용어로 만들어진 사자성어가 많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上求菩提」하고 함께 많이 사용하는 「下化衆生」<sup>53)</sup>은 일본에만 존재하는 사자성어 예이고 이는 중국에서 오직 일반 불교용어로 사용한다. 일본에서 불교용어의 전문적인 사자성어사전이 존재할 만큼 불교용어로 만든 사자성어가 많이 존재한다.

본 연구의 결과 한·중에는 존재 하지 않고, 일본에만 존재하는 사자성어는 2,119개(27.1%)로 나타났다. 林先濬(2013)은 중·일에 존재하지 않고, 한국에만 존재하는 사자성어를 1,500개(53%)라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일본에만 존재하는 사자성어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사자성어보다 비율이 많이 낮았다. 이러한 이유는 『松南雜識』에서 유래한 「見蚊拔劍」, 『旬五志』에서 유래한 「猫頭懸鈴」와 같이 한국 고유의 사자성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50) 【日】戴逵破琴: 사람의 의지는 확고하여 흔들지 않는다.

51) 【日】程邈隸書: 程邈는 진시왕시대의 사람이고, 전설에는 隸書의 발명자이다.

52) 【日】几案之才: 아름다운 문장을 만드는 재능 혹은 그 재능 가지는 사람.

53) 【日】下化衆生: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

## 5. 결론

본 연구는 일본의 사자성어를 중심으로 중국, 한국 사자성어를 형태적으로 비교·분석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한·중·일사자성어목록」을 만들었는데, 그 대상은 7,818개이다. 이 중 한·중·일同形 사자성어는 총 2,236개(28.6%)이다. 중·일同形 이고, 한異形인 사자성어는 1,885개(24.1%)가 있고, 전체에서 두 번째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한·일同形이고, 중異形인 사자성어는 1,578개(20.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일본에만 존재하는 사자성어는 2,119개(27.1%)로 나타났다.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한·중·일 삼국에서 상호 통용되는 同形 사자성어가 가장 많이 조사되었다. 한·중·일 삼국은 같은 한자문화권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문화적으로 많은 유사한 점이 있으며, 그 유사성을 통해 사자성어가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또한 사자성어는 고정된 형식으로서 완전한 의미를 나타내는 특징으로 인해 많은 사자성어가 오늘날까지 그대로 통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張鳳運(2018)이 발표한 연구결과 즉, 한·중·일 同形 사자성어가 가장 많이 나타난 연구결과와 동일하다.

다음으로 중·일同形 사자성어의 비율이 한·일同形 사자성어의 비율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林先濬의 연구결과와 동일했다. 그리고 張鳳運의 결과와는 상반된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張鳳運은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한국의 초등국어사전을 연구대상으로 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참고한 일본의 사자성어는 대부분 중국 고적과 詩文에서 유래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중·일同形인 사자성어가 한·일同形인 것보다 많다는 것이 본 연구의 두 번째 결론이다. 또한 본고에서는 연구대상으로 제외했지만 중·한同形 사자성어의 비교에도 동일한 결과로 추측된다.

마지막으로 한·중·일 삼국 중 일본에만 존재하는 사자성어는 전체의 2,119개(27.1%)로 조사 되었다. 林先濬은 한·중·일 삼국 중 한국에만 존재하는 사자성어를 1,500개(53%)라고 분석했다. 이렇게 한국에만 존재하는 사자성어의 비율이 높은 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見蚊拔劍」, 「貓頭懸鈴」 등을 비롯하여 한국의 고서에서 출전한 사자성어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의 성어를 재조합 하거나 축소하여 새롭게 만든 사자성어가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원인에 한국에만 존재하는 사자성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중·일 사자성어의 차이가 생긴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 한·중·일 삼국의 부분적 차이의 경우 사자성어의 의미를 정확하

게 표현하기 위해 同音·同意 한자로 사자성어의 일부분을 변화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立身處世」과 한·일의 「立身出世」가 있었다. 둘째 사자성어의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하기 위해 네 글자로 축소한 경우이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성어 「人无遠慮, 必有近憂」는 한·일에서 「遠慮近憂」로 축소되었다. 셋째 사자성어의 어순적 차이가 생긴 경우이다. 이는 각 나라의 언어 및 생활습관의 차이로 어순이 바뀐 사례이다. 예컨대 한·일의 사자성어 「再起不能」는 중국의 「不能再起」의 어순을 바꿨다. 이는 각 나라의 언어 환경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한·중·일 각 국에 서로 상응하는 사자성어가 없는 경우이다. 이것은 각 나라의 언어문화와 불교문화에 인식차이에 기인한다.

본 연구는 일본의 속어를 중심으로 한·일, 중·일의 사자성어를 형태론적으로 비교·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기존의 한·중·일 사자성어에 대한 의미론적 선행 연구의 성과를 계승하되, 선행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진행하였다. 또한 이번 연구를 통해 한·중·일 삼국의 사자성어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의 사자성어를 분석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리고 일본의 성어 중 ‘之’字를 사용하고 있는 사자성어, 불교에서 유래한 사자성어 마지막으로 연대별·작품별 사자성어를 정리 및 비교 연구는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겨 두겠다.

## 【참고문헌】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제3판), 동아출판  
 김미(2014) 『韓國漢字成語構式研究』, 漢陽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pp.1-198.  
 동아서저사서편집국(2018) 『동아 새 국어사전』 (제5판), 동아출판  
 민병삼(1999) 「中·韓 漢字成語의 活用比較」 『인문과학논집』 7권, 강남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pp.169-199.  
 송철천(2009) 「「故事來歷に基づくタイプ」の日韓兩國語の対照分析」 『일본어문학』 47권, 일본어문학회, pp.37-56. (DOI: 10.21792/trijpn.2009..47.003)  
 장봉운(2018) 『韓·中·日四字成語 比較研究—연세 초등국어사전에 나타난 四字成語中心으로—』, 圓光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pp.1-59.  
 北原保雄(2003) 『日本國語大辭典』 (第2版)、小学館  
 三省堂編修所(2013) 『新明解四字熟語辭典』 (第2版)、三省堂出版  
 眞藤健志郎(1985) 『「四字熟語」の辭典—活用引用自由自在』、pp.2-7.  
 新村出(2012) 『大辭泉』 (第2版)、小学館  
 高島俊男(2009) 『ちょっとへんだぞ四字熟語』、文春文庫、pp.12-38.  
 日本國語大辭典第二版編集委員會(2013) 『國語大辭典』 (第2版)、小学館  
 山田忠雄(2011) 『新明解國語辭典』 (第4版)、三省堂  
 李叶(2016) 『日中兩言語における数字を含む四字熟語の対照研究』、關西外國語大學 大學院 博

士學位論文、pp.1-314.

林先渝(2013) 「韩语汉字成语的语源及其与中、日用语的异同」 『韩国学研究论文集』 第二辑、pp.67-81.

马国凡(1978) 『成语』 (第二版)、内蒙古人民出版社、pp.3-233.

倪宝元·姚鹏慈(1979) 『成语九章』、浙江教育出版社、pp.2-258.

商务印书馆辞书研究中心(2013) 『新华词典』 (第4版)、商务印书馆出版

商务印书馆辞书研究中心(2015) 『辞源』 (第三版)、商务印书馆出版

中国社会科学语言研究所(2018) 『现代汉语词典』 (第7版)、吉林教育出版

논문 투고 일자 : 2019. 11. 30.
--------------------------

논문 심사 일자 : 2020. 01. 28.
--------------------------

게재 확정 일자 : 2020. 01. 30.
--------------------------

---

 <要旨>
 

---

## 韓・中・日四字成語の形態的一考察

李玉全·李香蘭

本研究は、日本の四字成語を中心に、中国、韓国の四字成語と形態的に比較・分析したものである。総7,818語のうち、韓・中・日同形のは2,236語あり、全体の28.6%を占め、最も多く見られた。日・中同形韓異形のは1,885語 (24.1%) で、日・韓同形中異形のは1,578語 (20.2%) であり、最も少ない。そのほか、日本だけの四字成語は2,119語 (27.1%) が現れた。

比較した結果、韓・中・日同形のものが一番多く確認されたが、これは張 (2018) の研究結果と同じである。次に、日・中同形のは日・韓同形のものより多く見られた。これは林 (2013) の結果とは同じであるが、張 (2018) の結果とは逆になっている。最後に、日本だけの四字成語は、林 (2013) の結果に比べて、比較的比率が低い。

次に、韓・中・日四字成語の異形のパターンは以下のものである。「一部分が異なる四字成語」、「語順が異なる四字成語」、「各国に対応する四字成語がない場合」などが挙げられる。こうした異形が現れた原因は、各国の言語文化と仏教文化に対する認識の差、または中国の成語の再組合せと縮小した結果によるからである。

## Korean, Chinese, and Japanese four-letter syntactical comparison

Li, Yu-Quan·Lee, Hyang-Ran

The reason for the appearance of these variants is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recognition of language culture and Buddhist culture in each country.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morphologically the Japanese and Chinese lexicons, focusing on Japanese lexicons. Of the 7,818 words, the most common (2,236, i.e., 28.6%) were Korean, Chinese, and Japanese. The number of Japanese/Chinese isomorphic variants was 1,885 (24.1%), and the number of Japanese/Chinese isomorphous variants was 1,578 (20.2%). In addition, 2,119 words (27.1%) appeared as the only four-letter words in Japanese.

As a result of the comparison, the Korean, Chinese, and Japanese isomorphs were most frequently investigated, which is similar to the research result of Zhang (2018). Japanese and Chinese isomorphs were more common than Japanese and Korean isomorphs. This is similar the result of Hayashi's (2013) study, but opposite to the result of a study by Zhang (2018). Japanese-only four-letter words have a relatively low ratio compared to Hayashi's (2013) results.

There were variant patterns in the Korean, Chinese, and Japanese characters. For example, "a part of a four-letter word that differs in part," "a four-letter word that has a different word order," and "a case where there is no four-letter word corresponding to each country." The reason for the appearance of these variants was the difference in the recognition of language culture and Buddhist culture in each country, or the result of the reduction and recombination of Chinese words.